치 사

오늘 이 뜻 깊은 자리에, 바쁘신 중에도 동참해 주신 기업인 등을 비롯한 내외빈, 경제인 불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종단에서는 여러 포교단체와 신도단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의미 있는 포교활성화에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종단과 한국불교 포교분야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전하는 경제인은, 장자와 거사, 보살이라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전법을 시작하셨을 때, 여러 재가불자들의 후원과 보시가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왕사성의 대신이면서 의사였던 지바카, 사위성의 수닷타 장자, 그리고 큰 부자

였던 비사카 부인 등이 부처님께서 전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교단을 외호했습니다. 그 공로는 부처님의 10대 제자보다 크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그 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한, 진리의 깊이도 10대 제자에 버금갑니다.

아함경같은 초기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이러한 기업가나 상공인들에게 재물의 축적을 권장하고 칭찬하셨던 말씀이 나옵니다.

‘정당하게 돈이나 재물을 구하고 그것을 보시해서 복을 구하라. 남에게 베풀고 자기도 누리며 또 그것으로 복덕을 지어라.’라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정당하게 재물을 축적하고 그것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실천하는 일입니다.

경제인 불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한국 사회의 근간이자 국가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앞으로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 회원들과 소속 기업들이, 부처님의 가피로 나날이 번창하고 발전하여 일류기업이 되고, 종단의 훌륭한 불자들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시대의 상황이 불교의 역할, 또 사회적 기여에 대한 요청이 높아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한국불교와 우리 종단의 역량이 결집되고 튼튼하게 조직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기업인을 비롯한

20100615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 창립대회

경제인 불자 여러분의 노력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종단 역시 지금까지 일구어온 여러 가지 성과와 포교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임기 내에 신도를 교육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포교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또 이를 밑거름으로 불교계와 종단에 요청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종단과 발을 맞추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의 창립을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축하를 위해 동참해주신 사부대중 불자님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54년 6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